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머릿글 고려대 석좌교수, 前 주미대사 양 성 철

5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연세대 총장 정 창 영

커버스토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배 영 식

신용보증업무의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고객만족 경영

나의 경영이야기

비틀맵 사장 김 은 영

지자체특강

문화재청 청장 유 흥 준

특별칼럼

웰빙 축제연구원 원장 정 준

회원&연구원소식

세상을 보는 눈 성덕대학 학장 윤 지 현

발행인편지 / 리더십 이야기 / 조순 칼럼

표지인물 배 영 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사진 이태인 기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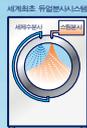
2005 May

등록 제1호 [매체]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인 : 정민기 안건개발연구원(KHI) 주소 : 136-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di.or.kr 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62 6323

3번의 세계 최초로 스팀트롬이 되었다

- 세계 최초 듀얼분사시스템 • 세계 최초 DD모터 방식 • 세계 최초 13kg 대용량
- 세계 최초 기술들이 모여 탄생한 스팀트롬을 만나보십시오

세계에서 하나 뿐인
스팀트롬의 듀얼분사시스템



세탁과 분사를 반복하는 순간방식이 아닌 『지속분사방식』으로 더 강력한 스팀의 세탁력을 발휘하는 스팀트롬. 98°C의 『고온스팀 분사』는 물론 『세제수 분사』까지 더해진 세계 최초의 듀얼분사시스템 - 이제 스팀만으로도 삶는 수준의 세탁력과 살균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한 스팀 분사로 짜든 때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구김제거 코스는 옷감의 구김을 없애 세 옷감이 되신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모델명 : WD-MR230H



STEAM

우리나라 대표 세탁기

트롬

TROMM

안팎의 정황

양성철 고려대 석좌교수 / 前 주미대사

스페인 태생의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1863-1952)는 “과거(의 잘못)를 기억하지 못하는 者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고 했다. 오늘 안팎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정황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나무의 나이테나 대나무 마디처럼 우리 삶도 매듭이 있다. 2005년이 바로 그런 해이다.

안으로는 일제식민 강점의 전기(轉機)가 된 을사보호조약 100주년이다. 또한 광복의 대가(代價)처럼 뒤따른 조국분단 6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다. 밖으로는 2차 세계대전 종식, UN창설 60주년이다.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합의로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금융, 통상의 틀로 출범한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前 GATT)의 태동도 회감을 맞는다.

그런데 40년, 60년, 100년이 지난 오늘의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는 어떤가? 큰 눈, 큰 흐름으로 보면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분단 60년을 맞는 한반도는 세 가지 갈등과 딜레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옆치락뒤치락 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남북한 경제 격차는 커지고,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해법을 놓고 미·일·중·러 주변 나라들과 남북 관계는 더욱 열키고 설키고 있다.

보기를 몇 개 들어보자.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 송전(送電)을 끊은 지 57년만에 남북합의로 지난 3월 16일 개성공단에 적은 양(15,000kwh)이지만 남한이 거꾸로 대북 송전을 시작했다. 역시 남북한 합의로 5월말에는 한국(KT)의 개성공단 직통전화가 개설된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한 남한주민의 금강산 관광객은 작년 말 현재 110만명(해상 856,997명, 육로 302,403명)을 넘어섰다. 남

북한 반출입 총량도 2003년에 7억 2,400만불, 2004년 6억 9,700만불로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의 제2 통상규모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 12,000~17,000불, 북한 800~1,000불 선으로 추정하면, 남이 북의 16배이다. 북한의 2003년 GNI를 184억불, 남한을 6,060억불로 본 한국은행 수치로 보면, 남의 경제규모는 북의 33배가 넘는다. 통일 당시 동서독 격차보다 그 골이 훨씬 크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나라들의 움직임이다. 청일전쟁(1894-1895)을 거쳐 러일전쟁(1904-1905) 종식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주변 몇 정권들의 특정 세력들이 일본 제국주의 망령(亡靈)이 되살아 나는 것 같은 시대 퇴역적 분위기를 부추겨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의(大義)를 저버리고 소리(小利)에 매달리는 연동과 정책 추구에 눈이 어두워진 모습이다. 인류평화, 지역안정과 공동번영, 조국의 평화통일의 이름으로 단연코 규탄, 저지해야 한다.

산타야나가 경고하듯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몇몇 지도자들이 불행한 과거사를 망각하고 해묵은 망령을 되살리려 하는 것은 비단 자국민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또다시 그러한 비극과 희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人間**



양성철 고려대 석좌교수 / 前 주미대사

1939년 생 / 서울대 정치학 학사 / 美 하와이대 정치학 석사 / 美 켄터키대 정치학 박사 / 美 동켄터키대, 켄터키대 교수 / 美 켄터키한인회 회장 / 서울대 초빙교수 /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제15대 국회의원 / 통일외교정책포럼 대표 / 주미 특명전권대사

5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00회 기념

한국 현대사를 말한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과 건설하는 사람

1400회 5월 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사를 논함에 있어 누가 우리의 역사를 건설해왔는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견해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적 지도자들은 역사를 움직이거나 이끌어왔을지는 몰라도 역사를 건설하지는 않았다.

요즘 우리는 역사를 파괴하는 개인보다는 그 밑에서 역사를 건설해 가는 민중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과거로 갈수록 역사의 공과를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으나 근대 및 현대사회로 내려오면서 역사의 건설적 의미를 민중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가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한 명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역사를 건설하는 사람은 역사와 사회 속에 살면서 언제나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일의 의미와 결과를 사회에 남기고, 일의 목적을 인간에게 두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사상계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 숭실대 명예교수에 이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1400회 연구회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짚어보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소장

-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회장
- 한국월드비전 명예이사

(상훈) 국민훈장 목단장, 제1회 인제인성대상, 제2회 연문인상, 제6회 송실인상 형남학술대상

(저서) 철학개론, 김형석전집(수필집, 10권), 아름다운 사색, 종교의 철학적 이해, 철학의 세계, 산다는 것의 의미 외

- 日 상지대 철학 학사
- 연세대 강사, 조교수
- 美 하버드대 연구교수
- 연세대 철학과 교수
- 연세대 교양학부 부장
- 연세대 학생상담소 소장
- 한국월드비전 이사
-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한국경제와 과학기술의 뉴패러다임

1401회 5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여건은 결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기업 환경도 고유가, 원자재난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다. 그 동안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동원됐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산업시설과 국토가 폐허로 변했지만 전후 '기술 추격형 국가발전전략'을 시도해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독일이나 일본처럼 선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기술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유전공학, IT, 나노 분야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과학기술의 뉴패러다임 정책으로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조기 실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을 초빙하여 과학기술의 뉴패러다임을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육군사관학교 18기
-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 美 뉴욕주립대 전기공학 석·박사
- 육군사관학교 교수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통령 경제과학비서관
- 체신부 장관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대전세계박람회(Expo) 조직위원장
- 한국아구위원회 총재
- 건설교통부 장관
- 동아일보사 사장, 회장
- 아주대 총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상훈〉 청조근정훈장, 금탑산업훈장, 황조근정훈장 외
〈저서〉 전기전자공학, 정보화사회 그 천의 얼굴, 엑스포와 미래이야기 외

국가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1402회 5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부는 년 초에 중소기업을 경제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가 기술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만큼 혁신선도형 기업을 육성해 뒤쳐진 중소기업을 이끌어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조성하며,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지난 4월 1일 창립 16주년을 맞아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을 가져오는 만큼 한계가 있다며 창조적인 경제 비전을 실현하려면 벤처를 키워야 한다고 혁신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기보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기술평가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패자부활시스템을 도입해 벤처경영의 재기를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형 기업이 전문성, 유연성, 기민성, 창의성을 두루 지니고 있어 우리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초빙하여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혁신선도형 기업육성과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상대 학사
- 美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공인회계사 합격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행정사무관
-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외국인투자

-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근무
- 재정경제원 경제홍보기획단장, 관세국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금융분과위원장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상훈〉 홍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1403회 5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대환 노동부 장관

우리 사회가 정보·지식기반화에 따라 과거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질서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질서로 전환되어 가면서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별 노조조직이 주축이 되어 노동시장이 기업단위로 분절되어 있다. 또한 노사간의 대립성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조율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로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단체교섭이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규범을 형성하는 주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노동법의 개편으로 노조의 결성과 단체행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졌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한국형 노사관계'의 틀을 잡아가는 전환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대립적이고 분권화된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도 중립적 조정자로서 노사관계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고 때로는 노사관계의 파트너로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초빙하여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영국 옥스퍼드대 St. Antony's College 초빙교수
-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한국산업노동학회 부회장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노사정위원회 신노사문화준비팀장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 인하대 경성대학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

〈저서〉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공저), 민주적 시장경제 : 원리와 정책과제 외

글로벌시대 대학의 수월성(秀越性)과 한국의 국제경쟁력

정창영 연세대 총장

우리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인 혁신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된 큰 이유는 혁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 원동은 혁신이다. 혁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기업가이다. 기업가가 수행하는 혁신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경제를 융성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이 대군'이라고 말하였다. 대군이 수행하는 혁신기능이 경제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기업가들의 업적이나 실적을 칭찬, 격려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꼭 필요하다.



제1395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3월 31일(목요일)

자본주의 경제발전 원동은 혁신

사람, 인재, 인적자원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이웃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나라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우리의 자원은 인적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학에서 이런 일당백의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피터 드러커의 <미래사회(2001)>를 보면 “기업하고 대학은 같다”는 말이 나온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대학이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1992년에 연세대학교는 201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들겠다는 ‘연세 21세기 vision’을 세웠다.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대학의 새로운 시작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기본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연세대의 경우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봉사의 기능을 강조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창립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면 공부는 잘하지만 가계가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연세 한마음 입학 전형’이라는 장학제도를 두고 있고, 재학생 중에 가계가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연세의료원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시혜도 하고 있으며, 북한주민 돕기, 혈액은행 돕기, 몽골 의료 선교사 파견 등을 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교육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에 입학해 4년 혹은 6년 동안 배우고 졸업한 후 세계무대에 섰을 때 어떤 분야에서든 선진국 동년배들과 손색이 없는 세계인을 키우자는 게 가장 큰 교육 목표이다.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눈을 피한다든가 움츠려 들지 않고 자랑스러워 충만한 세계인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교육 목표중 하나이다.

전공교육은 졸업 후 4~5년 지나면 無用, 기초교육이 중요 선진국의 동년배와 경쟁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지도자(elite)를 배출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한 엘리트르 키우는 것이 제2의 목적이다.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문학, 역사, 철학에 있어서 깊이 있는 독서를 한 엘리트르 말한다. 즉 세계무대에 섰을 때 선진국 동년배에 비해서 결코 독서량이 뒤지지 않는 엘리트르 키워야 한다. 작년 하버드대는 교과 과정을 대폭 개편해서 문학, 역사, 철학 이외에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지식을 인문·사회계 학생들도 반드시 이수하게 했다. 그리고 문학, 역사, 철학, 과학 등 기초지식 이외에 음악, 미술, 책에 대한 조예 등이 엘리트르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즘은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때는 내내 놀기만 한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놀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의과대, 치과대 학생이 본과 올라가기 전 2년 동안의 예과 성적이 본과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놀기만 하는데 이 우수한 학생들이 2년 동안 시간을 그냥



소비해 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다. 총장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예과 성적이 본과에 반영 되도록 해서 1학년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든 것이었다. 어떤 교육학자는 대학 4년 동안의 성패가 대학 1학년 때의 처음 몇 주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한다. 이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고, 반대로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된다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교육이 대학을 졸업하고 4~5년 정도 지나면 쓸모가 없을 정도로 바뀐다. 영국에서는 1학년 때부터 전공교육을 깊게 시키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초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엘리트르의 기본요건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기초가 튼튼한 엘리트르 양성해서 어떻게 여건이 바뀌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예일대 총장인 레빈이 쓴 <The work of the university>라는 책을 보면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졸업식, 입학식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그때 총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선생으로서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인지 잘 나와 있다.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어떠한 선진국 동년배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연세인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예를 들면 “명저 읽기”라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이것은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서 100권 정도의 명저를 뽑아 1년 동안 20권씩 책을 읽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졸업할 때까지 100권을 읽게 된다.

Effective communicator는 리더의 필수요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리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말하기, 글쓰기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다. 신촌 캠퍼스에 외국인 어학강사가 28명이 있는데 10강좌에 심화반을 만들어서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정치과 학생이면 정치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 하나 교육적인 면으로 보면 연대 창립자인 언더우드의 생각에 따라 선교, 의료, 교육 미션을 완료하였다. 그분의 이름을 딴 언더우드 국제학부를 내년 봄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것은 새로운 실험이다. 지금 대학은 경제학과, 수학과 등 과별로 되어있다. 신촌캠퍼스만 보더라도 55개 학과가 있다. 이것은 100년 정도 된 전통이다. 세상은 하나인데 세상을 보기 위해 편의상 과별로 나누어 놓았다. 그렇다 보니 과별로 장벽이 높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요즘은 연구에 있어서도 퓨전 스타일이 유행하는데 학과 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목표는 높은 학과간 장벽을 허물고 기초 교육을 강화하는 스타일로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기초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새로운 실험이다. 100년 전통의 학과가 아니고 기초 교육을 튼튼히 하는 새로운 장으로 선택을 했다. 대학은 참으로 개혁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일본의 게이오대학도 후지사화 캠퍼스라는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해서 혁신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우리도 기존의 대학 체제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실험을 언더우드 국제학부를 통해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100명의 신입생을 뽑는데 반은 한국 학생이고 반은 외국 학생이다. 외국인 교수를 10분 정도 유치할 예정이다. 새로운 실험의 두 번째 이유는 기존에는 한국 선생이 한국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연세대가 추구하는 국제화는 한국 선생과 외국 선생이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을 가르치는 즉, 신촌 캠퍼스 자체를 국제화시키는 것이다. 이

것을 인바운드 국제화라고 한다.

연구는 수월성(秀越性)이 생명이다

두 번째로 연구에 대한 것이다. 연구는 수월성(秀越性)이 생명이다. 2등은 의미가 없다. 특히 예술 분야는 2등은 의미가 없다. 연구에 있어서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는 현재 3,600개의 대학이 있는데 연구 중심이 60개 정도 된다. 거의 대부분이 교육 중심이고 교육도 잘하면서 연구도 잘하는 대학이 60개 정도 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 중심 대학이 10개 정도는 돼야 된다.

뉴욕 타임즈 94년 2월 9일자 사설을 보면 “The research university as the jewel in the crown”이라는 말이 있다. “연구 중심 대학이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는 뜻이다.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한다.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세계 1등인 이유는 미국의 대학 경쟁력이 1등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대학은 한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한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대학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부시라는 사람이 <Science, the Endless Frontier(과학은 개척에 끝이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이것이 지난 60년 동안의 미국의 과학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책이다. 그 골격은 기초 과학에 대한 연구를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기초 과학 연구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60년 동안 미국의 과학 정책이 되었다.

미국인은 기초과학이 융성하면 R&D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가능해지고 기초연구가 융성하면 응용연구와 개발이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방 정부가 꾸준히 대학을 지원한 결과 오늘날 연구중심 대학이 생겨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일관된 과학정책이 미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든 기본적인 원동력이다.

일관된 과학정책이 미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든 기본적인 원동력

대학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경제 성장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를 지난 60년간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2000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보건산업 규모가 8,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지금 미국의 산업 중에 가장 큰 것이 보건산업이다. 그리고 대학도 굉장히 크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까지 합하면 규모가 아주 커지게 된다. 1905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으로 서울역 앞에 지어져 지금은 10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환자수가 5~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년에 몇 백만 명을 치료하는 큰 규모가 되었다. 10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일 건물로 가장 큰 새 병원을 개업한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재원을 모두 자력으로 조달한 것이다. 외부에서 차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과대학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여 수십 년 간 비

축된 자원으로 지은 건물이다. 연세의료원의 최대 자산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의과대 선생님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들을 회진하는 것이 연세의료원의 오래된 전통이다.

한국은 최근 10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다. 특히 이공계 젊은 조교수, 부교수들을 보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연구에 몰두한다. 연세대를 보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가고 부교수에서 교수로 올라갈 때 반드시 세계 유명 저널리스트 SCI에 3~5편 정도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이것을 한국의 모든 대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가끔 신문에 나오는 세계 100대 대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예전에 노벨상 받은 것들이 다 포함 되어 한국 대학들의 랭킹이 떨어지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들만 보면 한국의 대학 랭킹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004년 SCI에 등재된 논문의 수가 연대의 경우를 보면 1405편으로 교수 한 명이 1편 정도의 논문을 썼다. 세계에서 151위이지만 연구소에서 추정된 바에 의하면 2010년까지 세계 50위안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1992년에서 2010년까지 세계 100위안에 들겠다고 했지만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2010년까지 5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천문 우주 분야가 세계 정상권에 가 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때 이원철 박사라고 계셨는데 이 분이 우리나라 초대 기상대장을 했던 분이였다. ‘원철 스타’라고 교과서에 그 분 별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학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 이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년에 걸친 학문에 대한 탐구, 열정이 결실을 맺어서 천문·우주 분야가 세계 정상에 가 있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 의·공학 분야(의료기기)이다. 원주 캠퍼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세계 수준에 가 있다. 보건 산업에서 제약 분야가 90%이고 의료 기기는 10%이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 국가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계에서 굉장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제약 분야에서 한국이 제대로 세계 시장에서 몫을 차지하려면 규제를 풀어서 의·공학 분야의 연구가 융성하게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한국학 분야이다. 해방 전 연희전문학교 시절 위당 정인보, 외솔 최현배 등이 전부 연전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국학의 총본산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런 좁은 의미의 국학에서 벗어나 한국에 관한 모든 연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한국학 연구로 규정하고 한국학에 관한 한 월드 리서치 센터가 되겠다는 것이 연세대의 오랜 꿈이고 여기에 역점을 둘 것이다. ‘아프리카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는 아프리카 사람이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리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분야가 생명과학분야이다. 20세기는 물리학의 세기이고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이다. 생명과학이 서

양 어떤 곳이든 가장 주력이다. 바이오가 21세기 산업을 주도할 것이고 보건산업과 결합이 되어 굉장히 중요해진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산업이 중요해진다. 연세대학교는 이 분야에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가 있고 세계 수준의 임상병원이 있기 때문에 임상 경험과 본교의 생물학, 생명공학, 생화학과 결합을 한다.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21C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역점을 두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전체 세계 제약 시장의 10% 정도 마켓 수요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년 정도 꾸준히 이 분야를 육성하여 성공한다면 지금 IT분야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 분야도 충분히 공헌할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인 방침은 연구비는 전부 외부에서 가져오고 학교는 R&D를 위한 인프라만 제공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잘하는 분야는 자력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자연히 세계 정상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분야는 한국학과 바이오 메디컬 분야이다. 젊은 신입 교수도 많이 뽑는데 사람을 뽑을 때 전제 조건이 반드시 월드 클래스의 교수,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판단할 때 그런 클래스에 가 있지 못한 교수들은 이러한 권한으로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신입교수를 뽑는 것만 가지고 세계 주요 대학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40대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연구 역량을 과시한 교수들(석좌교수)을 초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MIT라고 하는 칭화대학교 석좌교수를 많이 초빙을 하고 있고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금 정부 재원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정도가 OECD 평균 GDP의 1%인데 우리나라는 0.4%밖에 되지 않는다. 형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교육부 예산의 80%를 투자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남미에서도 대학 중심으로 지원을 했고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지원을 했다. 형평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점이지만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급한 단계에 와있다.

대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

이번에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서 최첨단 디지털 정보관을 바꾸고 있다. 예전 도서관은 책만 놓아두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도서관 개념이 바뀌어 멀티미디어 디지털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이 큰 도움을 줘서 창립 기념일인 5월 14일에 착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학은 국민의 따뜻한 관심이나 애정을 먹고 사는 곳이다. 국민이 절대적으로 대학을 신뢰하고 대학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학을 성원하면서도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방법이다. **人間**



사진 : 이태인 기자

신용보증업무의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고객만족 경영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남을 먼저 생각하면 다툼이 없고, 스스로를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易地思之와 謙讓之德은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직원과 고객을 대할 때마다 가지는 평소의 좌우명이다. 직원은 직위와 직급을 떠나 '파트너'라는 대등한 관계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보증 심사를 할 때도 경성실적 등에 대한 결과보다는 CEO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평가와 함께 CEO의 비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배 이사장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신용보증기금과 내 일처럼 도와주는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에 감동한 고객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올 때면 보람을 느낀다는 고객만족경영의 선도자이다. 특히 신보는 금융권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IT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의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지원해주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전개로 과거의 관료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신보는 배 이사장 취임 후 공기업 혁신 주도기관으로써 많은 수상실적도 올려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보증의 축소 여론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차별적 대출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신용보증의 급격한 축소는 시기상조라며 신보의 보완적 기능을 역설하는 배영식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실태를 알아보고 취임 이후 혁신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보의 변화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949년 생 / 성균관대 법률학 학사 / 美 오레곤대 경제학 석사 /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사무관, 투자기관 2과장, 1과장 / 미중소문제연구소 파견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조서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대외경제심의관, 공보관 / 駐英 재정경제관(참사관)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센터 소장, 감사관, 경제협력국장, 기획관리실장

먼저 신용보증기금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76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산업기반(SOC)신용보증, 신용보험, 기업경영지원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죠. 현재 전국 84개 영업점과 10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설립 당시 신용보증 규모가 1천억원에 불과했으나 작년 말 현재 25만개 업체에 3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공급된 총 규모는 308조원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가는 신용보증기관의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대의 신용정보기관으로서 신용보증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59만여 건의 기업조사정보를 비롯해 1억 1천만 여건의 신용정보를 Database로 구축하고 이를 가공 분석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보의 2005년 보증공급 목표가 총 30조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신지요.

2005년도 보증운용 기본방향을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보증공급액 30조원 중 15조원을 중점지원부문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점 지원부부는 기존의 수출중소기업, 설비투자기업, 지역특화산업, 창업기업, 유망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등 6개 부문 이외에도 Network Loan보증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보가 중점지원부문에 대한 보증공급을 대폭 증액한 것은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설비투자확충 등 현실적으로 자금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보가 과거 공공기관의 관료적인 이미지와 함께 서비스 부분이 취약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장님은 투명경영, 윤리경영, 고객감동경영 등을 실천하시면서 변화를 꾀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경영규범 즉 Global Standard를 따르고 적응해야만 계속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신보는 고객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신보가 있기에 신보인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보는 공공 보증기관으로서 그 어떤 규범들보다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취임사에서 "기금은 시혜자이고 기업은 수혜자라는 의식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기업이 있기에 기금도 있고 기금이 있기에 기금인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직원들과 약속했어요. 저는 평소 易地思之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공급자인 신보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으로

의식의 대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기금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자율경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과 함께 청렴하고 투철한 윤리의식,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친절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고객만족경영은 고객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과 개선해야 할 과제를 찾아 CS(Customer Satisfaction)경영의 방향성을 'BEST Partner(Beneficial, Efficient, Satisfactory, and Tailored Partner)'로 선정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파트너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았습니다.

그 동안 신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BEST Partner for Enterprise', 즉 기업 최고의 동반자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02년 하반기부터 'We Partner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어요. 주요내용은 직원마인드를 고객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CS클리닉', '대고객서비스포인트제', '고객중심의 Layout 변경', '3Up-Down Syste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CS클리닉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혁신수준진단에서 모범사례로 채택될 만큼 가장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개혁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후 신보는 공기업 혁신 주도기관으로써 많은 수상실적도 올렸는데요. 그 동안 성과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시죠.

과분하게도 그 동안 여러 의미있는 상을 수상했어요. 2002년 7월 생산성본부가 주관한 '한국경영생산성대상 공기업부문 종합대상(대통령 표창)'을 필두로 03년 '공공기관부문 감사우수기관', '신노사문화대상 노동부장관상'과 04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혁신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05 국제표준경영대상"에서 서비스부문 '품질경영대상' 수상이 확정됨으로써 신보가 국제표준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신용보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상 배경은 신보가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시도했던 업무생산성 향상노력과 새로운 노사문화정착 노력,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제고, 윤리·투명경영 실천운동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배영식 이사장

지난 3월 8일, 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서 이사장님은 우리 경제 여건상 신용보증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보증규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신용보증제도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은행들은 아직까지 단기 운전자금과 담보 위주 대출에 치중하고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결국 금융기관이 보여준 냉·온탕식 대출 관행은 건전한 중소기업까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용보증제도는 그간 낙후된 금융산업의 중개기능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신용이 경색된 상황에서 금융기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용보증의 공급확대는 불가피했어요. 그에 따라 수백, 수천 개 기업이 연쇄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 고용과 국부를 창출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시스템이 정비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순기능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실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시장기능 작동이 순조롭지 못한 곳에는 신용보증의 보완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여건에서 신용보증의 급격한 축소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경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

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양극화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대응능력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R&D투자, 구조조정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해요. 정부 또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 신성장산업육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에 힘써야 하며, 향후 정부의 산업정책은 특정 업종·업체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력 배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년 들어서도 고유가, 달러화 약세, 세계 IT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나 다행히 여러 경기지표들이 호전되고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살아나고 있는 추세여서 경기회복이 기대됩니다.

신용보증제도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의 특성에 맞는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차별 완화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신보도 21세기 비전을 '글로벌 신용보증기관'으로 정하고 세계적인 신용보증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어요. 또한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회(ACSIC : Asian Credit Supplementation Institution Confederation)를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신용보증기금 주최로 일본, 대만의 신용보완기구 등 10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ACSIC 서울회의'를 89년 이후 16년 만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셨는데요.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CEO는 조직 내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 또한 취임 후 전문인력관리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 외부 위탁연수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사운용에 있어서도 능력 분위의 인사원칙을 위해 간부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평가를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호평가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였으며, 인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여 결국 노사화합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30여년간 경제관료로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것이지요. 이와 함께 이사장님만의 인생철학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산실인 경제기획원에서 세상보는 법도 배워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서 느낀 점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IMF 외환위기 당시 단기의 채를 중장기로 'Roll over'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는 국가부도를 막는 일이 급선무였는데 다행히 제가 재정경제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여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됐죠. 그 때는 정말 제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저는 '易地思之'와 '謙讓之德'을 평소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생활해왔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 다툼이 없고, 스스로를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조직에서도 공이 생겼을 때 동료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과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였을 때 오히려 겸손해할 줄 아는 마음이 모이면 더욱 강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특히 겸양지덕은 상호신뢰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본이 되죠..

이사장님은 바쁘신 중에도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시는 등 독서와 학습에도 열정을 보이시는데요. 요즘 읽고 계시는 책이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요즘은 Stephen R. Covey의 <The 8th Habit>을 읽고 있어요.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감명 깊게 읽었지만 자기 내면의 소명을 찾아 이루어내고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8번째 메시지 또한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 전에는 Duck, Jeanie Daniel의 <체인지 몬스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빠트린, 그러나 변화의 성공여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실증, 대안이 그것입니다. 또

저자는 구성원을 조직의 피부나 혈관으로 파악함으로써 조직의 변화에 대한 시각을 뒤집고 있죠. 경영자들은 지금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과적 접근법만으로 조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뼈대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온도나 습도에 민감한 피부와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기업은 생존을 위한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을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확인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직원을 파트너로서 생각하는 배영식 이사장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가정의 붕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의 가족 이야기와 함께 즐기시는 취미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실업과 소득감소, 카드빚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가정폭력과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가족체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평소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 대신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적응하며 사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죠. 아내와는 주말이면 함께 주로 주말농장에서 농작물을 가꾸는데 자연을 벗삼아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마음도 정리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의 법인회원으로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설립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한결같이 노력해 온 장 회장님과 연구원 임직원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동포들을 연계하는 'Koreans Network' 프로그램과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개발과 자치단체 경영 선진화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화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기관장으로서 중소기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주눅들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주체의 포럼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 분야의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나만의 브랜드로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는 힘

김은영 비틀맵 사장



▶ 비틀맵 갤러리 전경



우리 지도의 현실

나는 업무상 외국출장을 가게 되면 항상 빠뜨리지 않고 가는 곳이 서점이다. 런던 시내 중심부인 코벤트 가든 한켠에는 100년 전통의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가게(Map Shop)가 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지도들을 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 지도는 그 어디에도 없다. 현재 독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지도가 있긴 하지만 그 지도에 비춰진 우리의 이미지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아직도 표지에는 6~70년대 농촌의 이미지가 우리나라를 대변하고 있으니 지도의 세밀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지도업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도업체들은 글로벌화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마케팅이

나 응용기술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직접 하자는 생각을 하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도라는 아이템이 미디어로 다가오다

창업을 하기 전 맥주회사에서 마케팅과 영업을 했던 나는 영업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 세상 무슨 일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내 아이템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찾기 시작한 카테고리가 바로 '미디어'였다. 평소에도 여행을 즐기던 나는 92년부터 배낭여행을 시작했는데 여행이 주는 학습효과를 통해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배낭여행에서 지도나 가이드북은 여행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던 중 지도가 나에게 미디어로 다가오는 계기가 있었다. 바로 '맥도날드맵'이라는 것 때문이다. 파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가면 입구에 지도가 쌓여있다. 그 지도를 펼치면 파리 전도가 나오면서 맥도날드 매장이 햄버거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고 뒷면을 보면 맥도날드 매장 주변의 코스별 관광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크게 와 닿던 것이 없던 내게 그 지도는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의미가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이고 미디어이다. 그때부터 내가 지도를 가지고 얼마나 응용해서 개척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도 문화가 너무나 빈약했다. 지도라는 것은 '정보디자인'으로 정보전달력을 얼마나 높여서 디자인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는 우선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유럽의 입체지도가 나를 매료시킨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지도의 무한한 세계를 느꼈다. 광고에 있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비주얼이 중요한 것처럼 지도도 입체그림지도를 이용하면 인간의 심성을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

내 아이템, 내 브랜드로 시작한 것이 비틀맵

이 때가 1997년 10월말이었다. 보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나에게겐 그럴 시간이 없었다. 일에 집중하기 위해 바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11월 한 달 동안 국내 리서치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조이스 버드'라는 이름으로 창업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오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지오그라피를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회사이름에서부터 심어주고 싶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이름은 바뀌었지만 '비틀맵'이라는 브랜드는 창업초기부터 지은 것으로 여기에는 그 동안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비틀맵이란 비틀(딱정벌레)과 맵(지도)의 복합어로 입체그림지도와 그 지도를 활용한 지도 단행본과 잡지 등의 제품군을 일컫는 이름이다. 딱딱한 지도를 동화적이고 친근한 딱정벌레의 이미지와 결합시켜 쉽고 예쁘고 재미있는 입체그림지도를 표현하고자 붙여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브랜드를 들여와 마케팅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마케팅을 통해 그 브랜드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기업의 실정이 아쉬웠다. 하지만 남 탓할 것 없이 나부터 뭔가를 하자는 생각으로 내 아이템, 내 브랜드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고, 내가 시작한 아이템은 지도이고 그 지도에 브랜드를 붙인 것이 '비틀맵'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전도 'The Best Map Brand Globally'이다. 항상 우리의 사고는 해외로 열려있다. 뭔가를 해도 글로벌 브랜드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검토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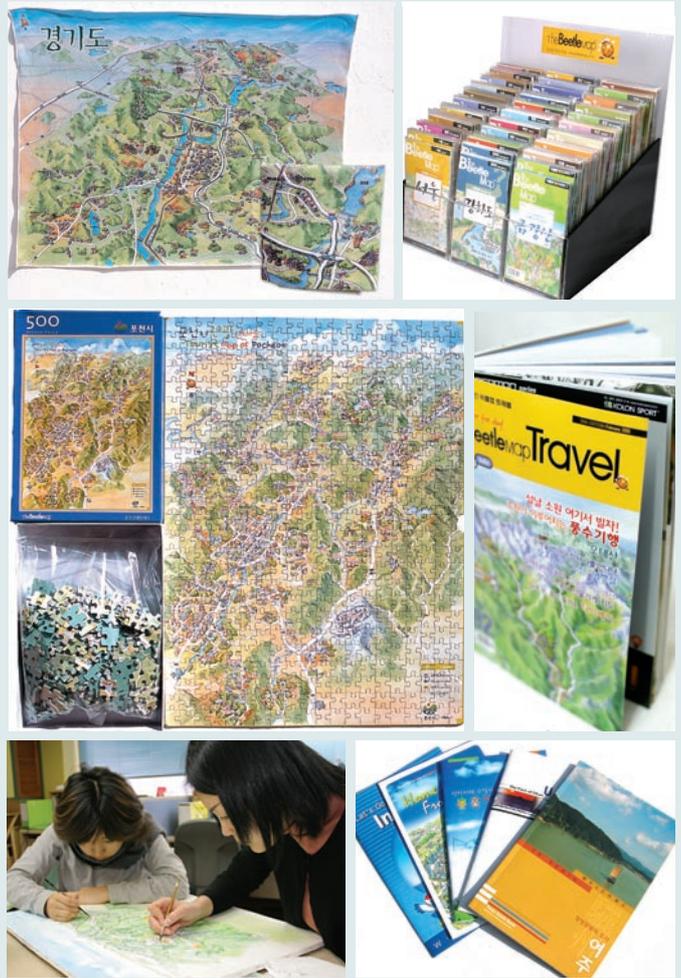
힘든 고비를 넘어 10년의 계획을 향해

물론 창업 초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시기였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가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무가지를 발행하는 환경과 유가지를 발행하는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다. 또한 입체지도의 제작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하여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일일이 지형을 리서치하고, 건물을 직접 촬영한 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가 정말 필요한 회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윤에 대한 문제로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지도 납품을 주주하면 실무작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지방자치단체 비즈니스였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지도를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데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에 지도 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그 지역의 가이드북도 되고 관광화보도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상의 기술을 가미하면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지자체에 설명하고 지자체와 투자금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의 안정을 꾀한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10년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7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초창기 업계에 입체지도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던 과거와는 달리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지자체는 하나의 전도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끝없는 아이템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모두 데이터로 축적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은 작업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민간기업에도 이를 응용해 판촉물 등으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 단행본, 잡지 등의 사업분야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계산업군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사업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밝은 비전이 있다.

세계시장에 '비틀맵'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목표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지도가 없



▶ 비틀맵 지도 제작팀 및 상품들

다. 그래서 비틀맵은 지난 2월 런던에서 열린 IMTA(International Map Trade Association)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국제지도협회의 회원이 되었고 영국이 해외유통의 첫 시장이 되었다. 향후 2~3년간 우리나라 전도와 제주도, 서울, 인천공항지도 등을 유통시킬 계획이다. 물론 판매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기에는 지정학적 위치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관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을 유치하게 되면 관광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 내 분명한 의견이다. 그리고 세계에 우리 비틀맵을 유통시킨다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를 주장하는 비틀맵이 세계의 쇼룸에 깔린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세계인이 제대로 된 한국지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은 'The Story Map'이라는 신규 브랜드로 이슈가 되는 장소를 스토리 맵으로 만드는 것이다. 올해 독도지도와 이스라엘 성지순례지도를 스토리 맵으로 출시할 계획인데 성지순례지도는 금년 1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IMTA Asia Pacific Conference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人間)

김은영 비틀맵 사장

1965년 생 / 전북대 상학과 학사 /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 하이네켄 국제상품 마케팅 이사 / 현 한국지도학회 이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사, 서울 컨벤션 비즈터즈 부로 이사

문화유산을 보는 법

유홍준 문화재청 청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21세기 고창미래포럼'은 고창군이 정보·지식·무한경쟁의 21C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하고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나가고자 지난 2003년 3월 개강한 지방자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16회가 진행된 고창미래포럼은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의 폭도 다양화되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3월 31일 "문화유산을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6회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저는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종로구에서 살았으니깐 서울의 4대문 안에서 산 서울 토박이입니다. 제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쓰면서 애정을 보인 곳은 고창, 강진, 정선 등으로 국토의 오지에 해당하는 곳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해서 쓴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당시 15년 정도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했던 것을 일반인들도 같은 시각에서 여행을 하면 시간을 의미있게 쓰지 않겠나 해서 쓴 것입니다.



제16회 21세기 고창미래포럼 2005년 3월 31일(목)

그런데 고창에 와서 아산면 상갑리의 '고인돌 떼무덤'에 대한 글을 쓸 때 미술사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장대한 것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을 '지석묘군'이라고 써서는 느낌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석묘군을 한국말로 바꾸면 '고인돌 무덤 떼'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떼강도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을 보고 '강도떼'보다 '떼강도'라고 하는 것이 강하구나 해서 '고인돌 떼무덤'이라고 쓴 것입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향수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체취를 그리워하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창이 앞으로 관광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창을 고창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창에 있는 것은 고창의 체취가 나아지 서울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외진 촌에도 도시 못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과장되게 도외적 세련미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들이 시내에서부터 관광지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 자신감을 가지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창이 고창다울 적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행정이 되고 설계가 됐을 때에 고창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지역다운 체취가 나아만 발전할 수 있는 것

고창읍성 경우에 우리나라에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모든 읍성들 다 망가지고 도시 속에 매몰되고 그랬지만 고창은 선운사와 상갑리에 있는 고인돌, 고창읍성만 가지고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백꽃도 고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백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동백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상상한 자연의 체취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갑리의 '고인돌 떼무덤'도 군수님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정비된 것보다 마구 방치되었던 때가 더 멋있었습니다. 고인돌 중간에 잔디 입혀서 현충사, 경복궁, 혹은 봉사 같이 해 놓은 것을 발이랑으로 골라서 농민들이 보려고 밀이고 심게 해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고인돌을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인위적인 잔디밭이 있는 것보다는 밀밭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명소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면서 우리 문화유산이 지켜질 때에 그리고 평 뚫려 있는 그곳에 나이드 감나무 몇 그루 심어 놓으면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주 보니까 감동이 없겠지만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그것이 큰 감동입니다.

〈늑두장군〉을 쓴 송기숙 문화중심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 책을 보고 저에게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네가 그 책을 쓴 것은 서울 사람이라 썼어. 나 같은 시골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지 않지. 자네는 봄에 모내기를 해서 물이 찰랑거리는 것도 아름답다고 썼네." 자긴 어렸을 때부터 봐 온 것이 문화적인 것이 되는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내기 해놓으면 파스텔로 칠한 것처럼 연두색으



▶ 유홍준 정장이 고창지역의 문화재를 둘러보고 있다.

로 찰랑거리는 색깔을 느끼는 것은 제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고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 옛날 건축, 그 중에서도 절들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모습을 지켜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갔다는 차원 속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보여졌던 그 정신과 또 어느 부분들이 삶이나 행정 속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경주에 가면 황룡사터가 있는데 경주에서는 이것을 복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로 지은 것인데 지금 복원하려면 3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11톤 트럭으로 500대분이 있어야 합니다. 경복궁을 복원하는데 소나무가 부족해서 캐나다 산을 수입하는 판국인데 이것을 복원할 능력이 안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세울 기술도 없고 재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협약을 했습니다. 울진에 150년 된 낙락장송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으면서 써놓은 것이 '여기에 심어놓은 소나무는 우리의 후손들이 전통 건축을 보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심어 놓은 것이므로 향후 150년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소나무를 벨 수 없다' 300년 후 후손들이 사용하라고 심었습니다. 경주 황룡사터를 복원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내용 면으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우리의 문화유산과 복원의 문제

부여 정림사탑에 있는 5층탑을 계기로 한국은 목조건축의 탑에서 석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 백제 사람들의 전통은 신라의 감홍사 탑에서 아주 장대한 3층 석탑을 만들면서 통일 신라의 기상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100년 동안 세련시켜서 나온 것이 아사달이 만들었다고 하는 불국사의 석가탑입니다. 아주 단아하게 만들었지요. 바로 이 석가탑 옆에 다보탑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묘미가 있는 겁니다. 절집 마당 한가운데에 단순한 집하고 단순한 탑하고 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조화가 맞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부조화가 아니고 비례관계를 보면 33계단을 들어가면 석가탑, 다보탑이 있고 이것을 정삼각형을 그리고 꼭지점을 가지고 원을 그리면 4:5의 비율로



▶ 고창의 지역문화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유홍준 청장

아주 정연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의 통일로써 대비를 시켰던 겁니다. 그랬다는 증거는 밑에 있는 축대에 있습니다. 불국사 들어가면 33계단 청운교, 백운교를 넘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흙이 있는 곳이 본래 연못이었습니다. 70년대에 복원하면서 모든 재력이나 능력이 안 돼서 흙으로 매웠는데 언제고 다시 걷어 내고 다시 연못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 1년 예산이 3,500억입니다. 숫자로 많은 것 같지만 정부 예산의 1/400입니다.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열리면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고 해서 저는 차라리 국민 소득이 빨리 3만불 가계 성장하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로 가면 우리 문화재청 예산도 당연히 1조가 되는 겁니다.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때는 1/200이 되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겁니다. 선진 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문화가 받쳐주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불국사는 국민소득 1천불 시대에 복원한 문화재입니다. 국민 소득 1천불 시대에 복원하는 것과 1만불 시대에 복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알게 모르게 경제의 힘을 얻어 성장해 가는 것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문화와도 직결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고창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부에 닿던 안 닿던 간에 관광이라는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성장은 경제발전과 직결되며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것

관광은 여흥이 아니고 분명한 산업입니다. 21세기에 관광보다 더 큰 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창에 오는 사람을 발을 붙잡아서라도 하룻밤을 더 재우게 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곳을 돌아보고 다시 고창으로 돌아와 숙박하게 하는 것이 관광산업으로서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지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창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값싸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관방 같은 시멘트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옥의 별채 같은 분위기 있고 개인적인 방이 확보되어 있는 편안한 곳이 있다면 별장 같은 기분을 주니깐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래야 관광이 사는 겁니다.

우리 건축이 선운사를 비롯해서 산사로 들어가는데 산사의 몇 가지 예로 선암사의 암자나 절이 있는데 처음에는 용기종기 하나씩 해서 꼭 전통 마을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주는데 집이 앉혀지는 자리 하나 하나가 전부 천연덕스럽고 자연스럽고 서로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온 미술관 관장 4명을 데리고 선암사를 갔다가 근처 선암장이라는 여관에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외국인들이 불고기, 김치 다음으로 좋아하는 우리 음식이 비빔밥입니다. 그런데 보름동안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불고기는 먹는데 전골은 안 먹는 것입니다. 나중에 친해지니깐 이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음식에는 각 나라의 풍습이 있는데 자기 풍습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감이 들게 마련이라고 한 그릇에 입에 담았던 숟가락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네들 풍습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음식 풍습에는 음식 속에 동등 떠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보면 징그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채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야채 마음대로 집어 넣고 국물 따로 나오는 비빔밥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 낭비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음식이 국제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음식의 국제화 시도의 한계 첩첩이 겹쳐지는 '깊은 건축'이 한국 건축의 묘미

그런데 식사 후에 미국의 캐서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한국의 모든 절은 그렇게 생겼나? 세계 어느 나라든 건축물을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절은 들어가면 안에 또 집이 있고, 옆으로 돌아가면 아까 봤던 곳이 보이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 나온 다음에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이 집이다. 이 집의 평면이 된다.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 산 속 풍경이 바뀐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다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아까 이렇게 첩첩이 겹쳐지는 것을 깊은 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어진 건축을 깊은 건축이라고 하는가?" 이 이야기가 한국 건축의 묘미를 이야기해 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전통 중에서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가 키워가고 못된 전통은 잘라버려야 크는 것인데 지금까지 봐왔던 아름다운 전통이 죽어버리고 왜곡된 현대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망가트리는 것은 없는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관광의 미래까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문화재청장이라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마이크를 잡으면 학교에서 강의하던 버릇이 있어서 해서는 안될 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몰라도 고창 분들은 제가 고창 땅에 애정을 보였듯이 애정을 가지고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이야기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유홍준 문화재청 청장

1949년 생 / 서울대 미학과 학사 / 홍익대 미술사학 석사 / 성균관대 예술철학 박사 / 영남대 조형대학 교수 / 영남대 박물관 관장 /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



가정은 행복의 발전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시 사주간지 타임誌는 지난 2월 28일자 발행본에서 ‘마음과 몸’이라는 제호의 특집기사로 행복에 관한 과학적 관찰(The Science of HAPPINESS)을 장장 17페이지에 걸쳐 게재하였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할까. 과학적으로 탐구한 권위자들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행복의 원리’들을 읽어보면 크게 놀랄 것이라고 편집자는 덧붙이고 있다.

행복학 전문가인 에드워드 디이너 일리노이대 교수는 “행복이란 가정의 주 업무다.”라고 하면서 보다 만족스러운 삶으로 가는 8단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당신이 누리고 있는 복된 삶을 헤아려 보라. ②진절할 행동을 연마해 보라. ③인생의 기쁨을 깊숙이 음미해 보라. ④교훈과 지도를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⑤용서하는 것을 배우라. ⑥친구와 가족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⑦자신의 건강(몸)에 관심을 가져라. ⑧스트레스와 곤경에 대처하는 전략을 개발하라.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직위가 무엇이나 그리고 건강이 어떠하냐 등등이 삶을 만족하게 하는데 미친 영향은 놀랍게도 미미한데 비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튼튼하고 건강한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자기자신과의 관계이며 그 다음의 중요한 관계는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이 친구들과 맺는 관계이다. 그렇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자신과의 관계가 나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기 어렵고 가까운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정상이 아닌데 집밖의 친구 그리고 다양하게 엮어진 사회적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 가정은 에드워드 디이너 박사가 말하는 것과는 점점 먼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2기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정심’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기회(Opportunity)를 누리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동정심과 자유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이 50%를 넘어선 미국사회의 가정위기가 상존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의 동정심과 자유에 대한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회’란 ‘행복의 추구(The pursuit of Happiness)’로 요약할 수 있다.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파탄지경에 빠져 흔들리고 있는데 제 아무리 동정심과 자유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가정의 위기, 사회적, 국가적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위기현상은 이제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가정의 위기와 사회적 위기 현상은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와 가출 청소년, 노숙자 문제 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행복의 발전소’인 가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미국사회의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정책을 펴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전해오고 있다. 오늘의 위기의 한국을 구해내려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가지도자들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는 물론 국가존립의 이유인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리게 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온갖 국가정책이 동원된다 해도 ‘행복의 발전소’인 가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비결은 ‘사랑의 회복’이며 실천이다. 인간의 삶에 절대적 요소인 순수한 사랑의 회복 없이는 어떠한 사회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사랑의 전도사가 되어 20세기의 성자가 된 마더 테레사의 사랑이야기는 사랑만이 가족관계 회복과 가정위기 극복의 비결임을 역설하고 있다. 마더 테레사는 그의 <사랑의 힘>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참 사랑의 힘만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것이다.

사랑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 등 인간이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들도 사랑이 핵심이 되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라는 것을 명심하라.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독자 여러분들과 인간개발 가족 여러분들은 다함께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을 ‘행복의 발전소’로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人間



내 인생의 축제는 내가 만든다

정준 웰빙축제연구원 원장

재도약을 위한 희망의 축제



▶ 해남 땅끝해맞이축제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IMF 환란이 홀연히 찾아왔던 지난 98년 말, 서영훈(前 적십자 총재)대표께서 운영하고 계시던 시민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필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땅끝 축제」였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대단히 암울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위용을 자랑하던 유명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기업의 돈을 쥐고 있던 은행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명퇴자와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준비한 수많은 축제들은 손님들이 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고, 국내의 관광경기는 거의 실종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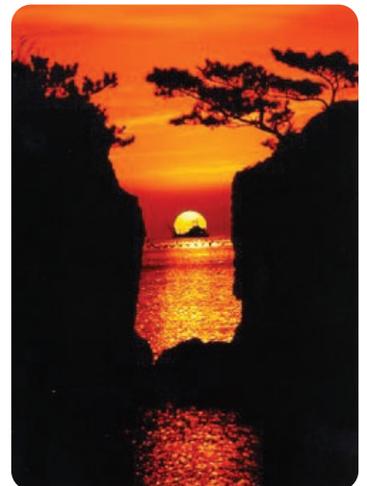
목전에서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직장이 사라지고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느 누가 느긋한 마음으로 관광을 떠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필자는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것도 육지의 최남단에 있는 전남 해남군의 땅끝 마을(土末)에서...

이러한 기획안을 처음 보고했을 때 시민단체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조차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획이라며 혹평을 서슴지 않

았다. 그러나 자신이 있었다. 아니 확실한 성공이 눈앞에 보였다. 땅끝(土末)이 무엇인가? 땅끝은 한반도의 벵랑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작은 마을이다. 물론 땅끝은 '육지의 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땅끝이 표시된 한반도의 지도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새로운 상상을 시작했다. 그래! 여기를 단순히 육지의 최남단에 위치한 '한반도의 벵랑끝'이라는 지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이곳은 IMF 환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경제적 위기에 빠진 우리민족이 넓은 남해바다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이라는 저 높은 백두대간의 험한 고지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정신적인 벵랑끝'이다. 백두산처럼 높은 '성공'만을 쳐다보며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 그만 가장 낮은 '실패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 우리 민족...

필자는 이 위태로운 한반도의 백척간두(땅끝)에서 좌절에 빠지고 절망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모두 초청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재도약의 의지를 강력하게 다지는 「희망의 땅끝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전국에서 모인 직장인들과 함께 땅끝 일출 보기, 땅끝 달리기, 땅끝 노래 배우기(정풍송 작곡·설운도 노래), 땅끝 문화 유적지(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 유적지)답사, 땅끝 정신 배우기 등의 행사를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진행했다. 1년 동안 이 행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4만Km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4백Km의 거리를 달려야 했고 8Kg이 넘는 살이 빠져야 했고 다른 모든 일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1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 일로 인해 전남 해남의 조그만 어촌마을이었던 땅끝 마을은 유명 관광지로 다시 태어났고, 중앙 정부의 지원과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해남 땅끝 마을의 일출

동심으로 되돌아가는 감성축제



▶ 제3회 함평나비축제 표본전시

덜경거리는 시외버스 한쪽 구석에 피곤한 몸을 눕힌 채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해남을 막 빠져 나온 버스가 나주로 방향을 바꾸는데 대로변에 걸려있는 현수막 하나가 언뜻 시야에 들어오는게 아닌가? 「제1회 함평 나비축제」 그것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이었다. 그 문안을 읽는 순간 머리 속에는 그 축제를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것은 기르기도 쉽지 않고 관리하기도 힘든 살아있는 곤충인 나비를 소재로 한 축제가 무척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해 5월 5일에 혼자서 함평으로 내려갔다.

함평은 무척이나 작고 초라한 시골이었다. 읍 한가운데로 자연 하천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고 좌우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주차 장소도 협소했고 진입로도 폭이 좁고 행사 프로그램도 시골 학예회처럼 소박했다. 그런데 그 날 축제를 보면서 감동 받았던 것은 나비라는 작고 가냘픈 곤충을 통해 사람들이 동심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노란 유채꽃밭과 분홍색 자운영 꽃밭 위에 인공적으로 길러낸 나비들을 보아야 했지만, 시골 촌로들이 나이 어린 손자 손녀들이 친진난만하게 뛰어 노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다. 독방 위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70년대 통기타 가수였던 김정호의 '하얀나비'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옛 추억에 잠시 잠겼다.

그 날 그곳에서 시골 막걸리로 목을 축이면서 6~70년대의 추억에 푹 젖어있던 필자는 서울행 버스 속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를 이처럼 옛 향수에 빠지게 만든 나비를 소재로 멋진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해남 땅끝 마을을 부지런히 오르내리던 99년 5월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2년 후인 2001년 4월초에 드디어 완성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함평군과 뜻하지 않게 인연을 맺고 소설 <나비처럼 날다>의 저자가 되어 '함평 나비축제 초대작가', '제3회 함

평 나비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또한 철도청의 지원을 받아 「함평 나비 기차여행축제」를 총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꽃과 나비로 예쁘게 치장된 특별 관광열차가 축제기간 동안 매일 서울역과 함평 사이를 운행하게 되자 이러한 내용이 각 언론과 TV 방송에 널리 홍보되었다. 이러한 홍보 덕분에 2001년 나비축제에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대성황을 이루는 한편 지역관광의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고, 역시 해남 땅끝 마을처럼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자유치를 촉발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 한국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흑자는 오히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와 민족이 급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급부상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농수산물개방, 관광 수익 적자, 낮은 재정자립도... 그러나 필자는 굳게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 25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를 도약시키고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해법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21세기형 웰빙축제"의 개발이라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축제로 유명해진 도시에는 인구가 모이고, 경제력이 집중되고, 향토 특산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고, 관광수익이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확립되었다. 또 다른 효과는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문화마인드가 형성되고 애항심과 자긍심이 고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선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축제의 힘이요 문화의 힘이요 관광의 힘이다.



▶ 제3회 함평나비축제 자운영밭

우리 모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과 자신감을 버리지 말자. 산불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오롯이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더욱 소중한 아름답듯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성공시킨 축제가 더욱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축제코리아! 파이팅! **人間**



정 준 웰빙축제연구원 원장

1956년 생 / 소설가, 시인, 작사가 / 월드투데이뉴스 문화부장 / 한국능률협회 축제 전문위원 / 희망의 땅끝 축제, 함평 나비 축제, 남도 기차여행 축제, 태안 해양 웰빙 축제 외 기획 / 국내 건강명사 선정 / KBS TV 아침마당, MBC 생방송 아침만들기, SBS 토요일집 모닝와이드, E 아사히TV 한국 전통건강법, 영국 로이더통신 한국 춤 건강제 등 출연 / 현 경남 하동군 웰빙추진팀 민간사무국장, (사)농촌체험휴양협회 대표

회원&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일양약품(대표 유태숙)**은 ‘스페인의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URI-



ACH사와 물질신약인 항히스타민제 ‘루파핀’의 국내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URICH사가 2003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루파핀은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알레르

기 비염치료제로 2세대 항히스타민제제로 불리는 ‘rufatadine’ 성분을 함유하여 집 먼지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환자는 물론 꽃가루 등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치료까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일양약품 유태숙 대표는 ‘지난 99년 첫 선을 보인 후 뛰어난 약효로 국내 피부 진균 치료제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URIACH사의 ‘나이트릴’ 라이선스에 이은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루파핀의 도입으로 연간 500억원의 국내 항히스타민제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국내 임상 및 KFDA승인을 거쳐 오는 2006년에 국내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유통, 농협물류, 남해화학 등 19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 경영혁신 선포식’을 갖고 올해를 ‘자회사 경영혁신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 **SH공사 김승규 사장**은 4월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관리부문에서 수상하였다.

- **의료법인 해동의료재단과 포천실버타운(회장 장찬기)**에서는 지난 4월 2일 포천해동전원교회에서 ‘특별초청강연 및 장찬기 이사장 장로 취임예배’와 해동실버가요제를 개최하였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4월 20일 한국일보 12층 대강당에서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가 주관하는 제5회 ‘한국CEO대상’을 수상하였다.

- **삼립식품(대표 김영덕)**이 호밀을 사용한 웰빙 제품인 ‘자연애향 밀식빵’을 출시하였다. 자연애향밀식빵은 곡물 특유의 향을 제거하는 대신 고소한 보리와 호밀향을 살려 식감을 개선한 제품이다.

- **한국야쿠르트(사장 김순무)** 임직원 봉사모임인 ‘사랑의 손길펴기회’는 강원도 양양과 고성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라면 500상자와 생수 500상자를 강원도청에 전달하였다.

- **고지석 고지석세무회계사무소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초당대학교 기업경영학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세무회계’와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고 회장은 보훈연수원에서 5년 동안 ‘생활세무’를 강의했으며 KBS 제1TV에서 세무정보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 **BIG DREAM & SUCCESS(사장 공한수)**에서는 두산중공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4월 15일(금)과 29일(금) 두 차례에 걸쳐 EPM(시간관리)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한·인도친선협회 회장)**은 최근 인도 도정부 초청으로 뉴델리를 방문하였다. 임 회장은 인도 만모한 싱 수상을 비롯해 외교장관, 상공부장관, 기획원장관 그리고 구즈랄 전 수상 등을 만나 양국의 친선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귀국하였다.

- **유한양행(대표 차중근)**과 서울특별시시사회(회장 박한성)는 지난 4월 15일(금)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8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유한양행과 서울특별시시사회가 공동으로 제정·시상하는 유한의학상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과 민유홍 교수가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수상하였다. 유한의학상은 미래의 의학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의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 110여 명의 의학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교보문고(대표 권경현)**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4월 24일 광화문 본점 도로공원역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책과 장미 증정행사, 독서릴레이, 독서퀴즈왕 쟁탈전,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보문고와 서울문화재단은 이 날을 시작으로 ‘책읽는 서울 2005’ 독서 캠페인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규회원



김인호 실리코리아(주) 사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8-8
신성빌딩 6층
- 전 화 : 02-3481-3092
- 팩 스 : 02-3481-3094
- 업 종 : 가구제조, 판매
- 홈페이지 : www.sealy.co.kr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최정현 씨엔케이(주) 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부산시 진구 가야동 60-21
조성씨엔피 빌딩 4층
- 전 화 : 051-893-7901
- 팩 스 : 051-893-7914
- 업 종 : 무역업
- 홈페이지 : www.cnkorea.co.kr
- 추천인 :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부원광학(주)	박춘봉 사장	(5월 1일)
(주)농협유통	이상영 사장	(5월 1일)
(주)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주)리더홀딩스	전병문 사장	(5월 1일)
(주)디에이치엘코리아	배광우 사장	(5월 8일)
(주)GMF	김수경 명예회장	(5월 8일)
(주)한국야쿠르트	이은선 고문	(5월 10일)
삼익LMS(주)	심갑보 부회장	(5월 10일)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 13일)
(주)칼튼테크	강용근 회장	(5월 15일)
동일토건	고재일 대표이사	(5월 20일)
거벽엔지니어링(주)	김영관 대표이사	(5월 20일)
(주)현대홈쇼핑	홍성원 대표이사 부사장	(5월 29일)
신원헬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제1그룹(회장 유상옥/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4월 25일(월) 오후 7시 남포면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제2그룹(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은 4월 13일(수) 이스트밸리 CC에서 4월 골프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제3그룹(회장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은 4월 22일(금) 가평 에덴스포츠타운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제4그룹(회장 김정배/수성 사장)은 4월 21일(목) 오후 6시 30분 놀부명가에서 전중찬 선생을 모시고 "대나무 안마봉 건강법"에 대한 주제로 제39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GE KOREA 이채욱 사장의 자녀 승윤양의 결혼식이 4월 21일(목) 오후 6시 LG아트센터 1층 아모리스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役員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비납입 (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人)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人~5人)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人이상)

◆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人) / 법인회원 : 年 \$ 3,000 (3人~5人)
특별회원 : 年 5,000 (6人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회원가입 문의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화 : 2203-3500 · 팩스 : 2203-1974

회원&연구원 소식

■연구원 소식

- **장만기 본원 회장**은 5월 4일 오후 8시 KTV <특별한 강의>에 출연하여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란 주제로 강의합니다.
- **양병무 본원 원장**은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자기개발과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양병무의 리더십과 행복이야기>란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연구원 회원 중 희망하시는 분들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산과 나무를 사랑하시는 회원 여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증명사진 1매
- 보낼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조연환 산림청장 비서실
- 문 의 : 비서실 T. 042-481-4101
-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인간개발연구원회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소식

• 경남 밀양시, 밀양아리랑대축제



사명대사의 충의정신과 성리학의 태두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지덕정신, 지조와 정절의 표성인 아랑낭자의 정순정신을 기리며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48회 밀양아리랑대축제는 경남의 대표적 향토축제로 문화예술행사 58개 종목이 열리는 종합민속축제입니다.

· 기간 : 4월 29일(금)~5월 2일(월)

- 장소 : 밀양시 일원
- 주제 : 고속화시대 뻗어가는 문화축제

• 전남 담양군, 담양대나무축제

대나무의 숨결이 살아있는 담양군은 '자연과 인간의 푸른 만남'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7회 대나무축제를 개최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대나무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나무를 테마로 개최되며, 지역 전체에서 대나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생태형 축제를

통하여 대나무 신산업화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구촌 대나무 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기간 : 4월 30일(토)~5월 5일(목)
- 장소 : 문화공원, 한국대나무박물관
- 주제 : 녹색웰빙의 멋과 맛의 체험

• 전남 장성군, 홍길동축제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홍길동이 장성출신 실존인물로 고증되어 그의 민중정신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제7회 홍길동축제는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로 홍길동 생가와 황룡강 둔치공원

에서 홍길동 추모제와 홍길동 선발대회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로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 기간 : 5월 5일(목)~7일(토)
- 장소 : 공설운동장, 홍길동 생가
- 주제 : I Love 홍길동! 함께 가요 장성!

• 전남 여수시, 진남제 여수거북선축제



거북선의 고향 여수에서는 사단법인 진남제전 보존회의 설립목적인 호국·향토민속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거북선을 최초로 창제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관광객과 시

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축제로 제39회 여수거북선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기간 : 5월 3일(화)~5일(목)
- 주 행사장 : 신항 제2부두
- 부 행사장 : 거북공원, 선소, 충민사, 자산공원, 어항단지, 진남체육공원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지사소식

1. 세움리더십인터내셔널 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과정 개강

LMI 라이선시 파트너인 (주)세움리더십인터내셔널에서 주관하는 교보생명보험(주)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교육이 총 16주 과정으로 4월 18일(월)과 22일(금)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나 업무 면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LMI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삶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교보의 Vision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2. BIG DREAM & SUCCESS EPL 수료자 정기 모임 안내

제19차 정기 강연회 – “다산 정약용에게 배운다”

- 연사 : 박석무 이사장 / 단국대학교
- 일시 : 5월 9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명동지사 교육장

제11차 정기 등산회 안내

- 가는곳 : 북한산(집결지는 추후 공지)
- 일 시 : 5월 15일(일) 오전 9시 30분

■LMI 교육프로그램

1.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요일, 2시간

2.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석세스플래너 포함
- 기간 : 9주간, 주1회 일요일, 3시간

3.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445-2086 (H) www.lmikorea.com
-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인간개발연구원은...

1975년에 설립한 순수민간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내면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합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도자, 기업경영자, 전문직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Better People, Better World)"는 생각으로 "人間中心의 기업문화창달"을 목표로 매주 한번의 거름도 없이 현재까지 1400여회의 경영자초찬 및 다양한 포럼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지식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돕고 있으며, 자기개발의 비전과 조직변화의 전략을 실천하는 효과적인 행동학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부터 연구원의 이념과 함께 하는 회원과 강사들이 뜻을 모아 월보 Better People Better World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회원사, 500대 기업, 역대강사,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협회 등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이사장 최창락
- 명예회장 조 순
- 회 장 장만기
- 원 장 양병무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전화 : 2203-3500
- 팩스 : 2203-1974
- 홈페이지 : www.khdi.or.kr



음악과 사람

윤지현 성덕대학 학장

음악치료(요법)

'음악치료'가 전문분야로 임상의 영역에 자리잡아 온 지는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음악의 기능은 연주, 감상, 오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 음악으로 내담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이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음악은 원시시대부터 종교,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 음악이 지닌 신비로운 힘은 주술적, 종교적, 철학적 해석을 거쳐오면서 음악 속의 의학, 의학 속의 음악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중 임상적용으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치료의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음악치료의 방법론

〈행동주의적 음악치료〉

행동과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정확한 자료와 분석관찰로 개인이

나 그룹의 역동성을 증시하며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측정 가능한 용어로 설계, 계획하여 문제되는 행동을 수정, 보완시킨다.

〈인본주의적 음악치료〉

영국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각 개인의 독특한 잠재력을 기본가정으로 건강한 욕구와 필요를 스스로 조절하는 인식의 경험을 유도하여 개인의 만족과 총체성을 불러일으켜 자아발달을 이끌어 준다.

〈분석적 음악치료〉

1970년대 초 영국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내담자의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고 성장할 수 있게 내담자와 치료사간의 전이되는 말이나, 상징적 음악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석적 음악치료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나 정신분석과는 달리 내담자와 치료사간의 대화 이외에 음악으로 전이와 역전이 이루어져 음악치료사에게 무의식적 느낌을 통하여 분석, 작업하는데 능동적 역할을 한다.

〈G. I. M. - Guided Imagery and Music〉

G. I. M. 치료기법은 1978년 미국의 Helen Bonny 박사가 처음 시작하여 발전시킨 음악치료이다. 주로 고전음악을 사용하여 음악의 연상작

용을 통하여 정신분석과 같은 기법으로 무의식을 탐구해 나가는 치료기법이며, 일반적으로 무의식은 말의 실수나 꿈, 망상, 공상 등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의식적 방어기전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무의식에 간혀있는 내용을 의식 밖으로 표출하려면 의식의 방어기전이 약해져야 한다. G. I. M.은 음악을 이완기법으로 사용하여 의식적 방어기전을 뛰어넘어 무의식이 표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창조적 음악치료〉

미국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Poul Nordoff와 영국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Clive Robbins가 발전시킨 치료법이다. 음악을 인간감정의 표현 양식의 근원으로 보는 노르도프와 로빈스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아동들에게 17년간 다양한 환경에서 개별치료와 집단치료를 한 사례를 기록, 녹화하면서 임상적 연구결과를 발표 및 발전시켰다.

1976년 노르도프의 죽음 이후 로빈스는 부인 케롤과 함께 '노르도프-로빈스 음악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협회와 센터를 전세계에 전파하였다. 창조적 음악치료의 특징은 창작음악과 즉흥연주가 강조된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수동적 접근이 아닌 능동적 접근으로 음악이 치료안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치료로써 사용되어 내담자의 치료적 성장에 동기부여 효과와 치료과정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창조적 음악치료는 원래 신체 및 정신지체 아동의 재활방법으로 발전되다가 지금은 성인 내담자의 개별치료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음악치료의 대상 그룹

음악치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음악치료가 태동되었을 때는 주로 정신질환, 정신지체가 대상이 되었지만, 음악치료의 이론이 정립되고 임상적용이 발달해 가면서 정서, 행동, 학습, 언어장애와 약물남용, 말기 환자, 통증,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늘날은 병원이거나 특수훈련소를 벗어나 일반인의 건강한 생활, 청소년들의 행동수정, 가족치료, 스트레스 조절 등 예방의학 측면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예방의학에서의 음악

현대 질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로 부를 만큼 질병의 80%가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인간은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원래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이겨내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의 하나이다. 우리 몸의 정보음과 같은 스트레스의 작동은 급격한 몸의 변화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라는 신호인 것이다. 인간의 신체에 해가 되는 스트레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자연 사라지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협스러운 상황에서 긴장이 지속되어 우리 몸이 이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암, 심장장애, 위장장애, 면역체계 약화 등 현대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의 해소에 있어서 음악치료는 스트레스 상태의 긴장이완을 돕는 릴렉세이션 훈련과 바이오 피드백에 사용되어 개인이나 그룹에 체계적인 음악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 완화, 해소하는 것이다.

동질성의 원리

음악치료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동질성의 원리'이다. 외부적인 소리가 대상자의 내면의 상태와 유사하게 일치되어 내면의 세계를 외부의 소리세계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울증 환

자는 흥겹고 즐거운 노래보다 우울하고 슬픈 노래에 더 빠른 자극을 받는다. 이 동질성의 원리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내담자의 단순히 보이는 현상적인 행동이상으로 역동적인 요소들이 개입된다. 즉 문화, 환경, 나이, 성별 등 개인에 따른 상황적인 동질성을 고려해야만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영혼의 안식처 음악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에서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주위에서 기분전환으로 화기애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대개 역효과적이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할 때 충분히 외로움에 젖어 슬픈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가라앉힌 뒤 차츰 활발한 음악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생의 기나긴 여정에서 수없이 부닥치는 문제 상황에 인간은 스스로 병들게 되고 고통을 느낀다.

외롭고 지칠 때 영혼의 안식을 음악속에서 음악의 신비로운 힘에 기대가며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찾아 볼 수 있다.

- 조용하고 명상에 잠긴 듯한 선율과 자신의 역경과 고뇌를 극복하는 심정을 표현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제5번이나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18번
- 인간의 슬픔과 비애를 어두움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맑은 기쁨으로 인간미를 포근히 담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G단조.
-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려하면서 부드럽게 노래한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교향곡C장조와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제6번
- 서정적 멜로디와 미국의 통속적 리듬이 어우러져 기계문명 속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는 인간의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한 거쉬윈의 <랩소디 인 블루>
- 유려한 멜로디에 충만한 화성, 풍부한 색채 변화를 곁들인 무곡으로 우아함을 표현 한 슈베르트의 <우아한 왈츠> 작품 77 등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人間**



윤지현 성덕대학 학장

1954년 생 / 효성여대 관현악과 학사 / 이화여대 음악교육 석사 / 대구대 심리치료 박사 / 대한음악치료학회 서울본부 이사 및 대구·경북지부 초대 지부장 / 성덕대학 기획실장, 산학협동처장, 부학장, 학장직무대리 / 현 성덕대학 음악계열 부교수, (사)산학협동기술연구원 이사, 월간 우먼라이프 이사, 여성신문사 이사



자아실현과 자발적인 동기부여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영향력이다. 자발적인 동기부여만 된다면 조직은 놀라운 생산성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 보인다.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주인의식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손님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기 일처럼 일하는 사람은 저절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사장은 자기처럼 조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

어도 성공한다고 하지 않는가. 부사장이 사장처럼 일하고 상무, 부장, 과장이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하는 기업은 우량조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욕구5단계론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유도하려면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교수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생리적인 욕구란 인간이 먹고 입고 쉬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안전의 욕구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다. 사회적인 욕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뜻한다. 자아존중의 욕구란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감정을 말한다. 끝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이 갖는 최상위의 욕망으로 자기개발과 목표성취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욕구5단계론'은 하위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위의 상위

욕구들은 바로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리더가 조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기본욕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원하는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욕구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경험하도록 유도할 때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동기부여 방법도 함께 살펴보는 게 효과적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기부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두려움에 의한 동기부여의 방법이다.

동기부여의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오래된 형태이다. 이는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도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지시대로 행동한 경험이 있다. 또 직장에서도 휴가를 내고 긴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장인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회사사정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 견책, 감봉, 명예퇴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의한 동기부여는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곧 그것에 무감각해지고 내성이 생기면서 심리적인 방어능력이 강화되는 속성이 있는 까닭이다.

둘째로는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 방법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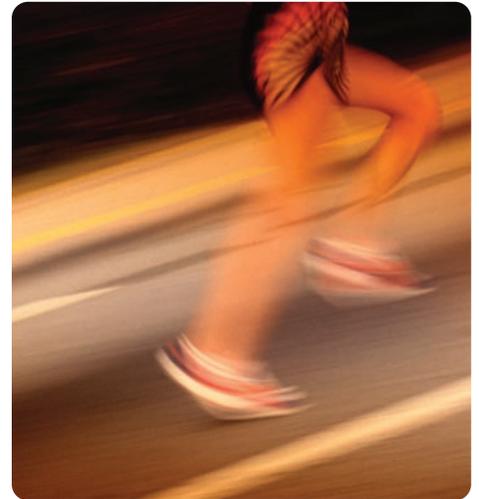
최근 기업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탈피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공헌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이다. 연봉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보상기준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해왔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상체계를 평등하게 함으로써 능력과 업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연봉제가 선진국에서처럼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봉제 역시 그 효과는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으므로 영향력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로 태도변화에 의한 동기부여의 방법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면서 가족과 사회와 경험에 의해 형성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신과 상사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일과 직장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면 자발적인 동

기부여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유한김벌리의 문국현 사장은 뉴패러다임 운동으로 유명하다. 그는 IMF 경제위기 때 경기위축과 노사관계 불안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신에 일을



공유하면서 학습조직을 만들었다. 특히 노조의 요구로 4조 2교대제를 도입하여 4일 동안 일하고 4일 동안 쉬게 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쉬는 동안에 학습할 기회를 주었고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종업원들의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오르며 산재율이 제로 수준에 접근하면서 직장만족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2.1%까지 급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신경쟁력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뉴패러다임 운동의 전도사가 되었다.

하지만 유한김벌리에서 근로자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태도를 단절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교육이 필요했다. CEO가 인내를 가지고 교육을 추진하였기에 긍정적이고 자발적이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 태도의 변화가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직결되어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욕구5단계론을 이해하고 태도변화에 의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하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꿈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하들이 지식사회에서 지식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리더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人間



한일관계를 생각한다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일관계의 진전을 보며

일 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미화하고 수상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더니 이번에는 공민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다. 후진들에게 이 땅은 꼭 되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성향을 알고는 있었으나, 참으로 속 좁고 사나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인가 소름을 느끼며,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격분한 국민들이 연일 항의 데모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저지할 방침을 밝혔다. 달리 국민의 분노를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좀 더 냉정하라고 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무엇을 하라는 말인지 분명치 않다.

1875년 일본군함 운양호(雲揚號)가 강화도를 침범함으로써 시작되어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에 이르는 3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 한국은 너무나 처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878년의 강화조규(江華條規)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그 때 이미 일본의 수식민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1882년 임오군난(壬午軍亂)의 결과로 또 한번의 양보를 강요당했다. 1884년 일본의 후견으로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쿠데타는 많은 대신들을 이유 없이 참살한 조선왕조 건국이후 최대의 비극이었다. 1885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때에 한국정부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 있었다.

다음해 을미사변(乙未事變)때 이 나라는 일본의 침략행진 유일의 장애요인이었던 명성황후가 궁정에서 일본의 무뢰한들에 참살당하는

다른 나라 역사에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의 비극을 당했다. 더욱욱 분한 것은 당시의 정부는 황후를 시해한 책임을 조선인 세 명에게 덮어씌워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모를 잃고도 총리대신을 비롯한 내각의 대신들은 사직서 하나 내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일본인이 시키는 작업을 집행했다는 사실이다.

아! 이 연속되는 비극과 참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군대가 약했던 탓인가. 그것도 있다.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있다. 일본이 월등하게 강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유는 보다 더 깊은데 있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국민의 힘을 뭉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갖춘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형직 전까지 자기의 비전을 담은 <동양평화론>을 쓴 안중근 같은 애국자가 없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지피지기(知彼知己)하는 지력(知力)이 없었다. 손자(孫子)가 만고의 명언을 남기지 않았는가.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상대방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방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며 싸움마다 위태롭다고 했다. 외교란 원래 총칼 없는 싸움이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나 자기자신에 대해서나 아는 것이 없었다. 일본인들의 본질은 그때에도 지금과 다름없었지만, 우리에게 대해서나 자기들에 대해서나 항상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백전백패, 게임이 될 수 없었다.



지금 우리는 지피지기를 하고 있는가. 최근 수년 동안 한일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되새겨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리는 좀더 비전과 지력을 갖추어야 한다. **人間**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25년여 동안 대한민국 카본의 역사를 함께 한 그 명성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모간의 카본제품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는 물론 철도, 발전소 등 전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도 수출되는 등 그 품질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Electrical Carbon



모간의 특수카본은 Mechanical Carbon 과 Specialty Graphite분야에서 모간그룹의 계열사들과 원재료부터 완제품 생산, 그리고 Application Engineering까지 모든것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최고를 추구합니다.

Engineered Carbon



**세계적인 품질
최대의 시장점유율
최고의 기술을 통해
모간의 명성과 전통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Thermal Ceramics

모간의 세라믹 사업부는 세계 최고의 Thermal Ceramics의 완벽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CAD 엔지니어링 시공설계부터 감리, 감독까지 열 관련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지원능력을 겸비한 세라믹하이버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SGL CARBON KARAHM

Carbon & Graphite 분야 세계 최고의 SGL Technik GmbH사의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 제공으로 흑연(Graphite) 열교환기 및 장치에 관한 최고의 설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日常속에 함께하는 기업”



www.karahm.co.kr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9-3
· 전화(031)735-5100
· 팩스(031)735-5106
· <http://www.karahm.co.kr>
· E-mail : karahm@karahm.com



내가 웃고, 널 위해
행복해지는 건
당신과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나의 가족을
매일 매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5월, 현대홈쇼핑에서 시작하세요

해마다 5월이면 당신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시죠?
소중한 분들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 현대홈쇼핑이 가득 전하겠습니다.



2년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 ☎ 주문전화: 080-000-0000

쇼핑의 명가家

현 대 홈 쇼핑
HYUNDAI HOME SHOPPING

Hmall